

신년사 영상메세지

올미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. 올해는 온순하고 화합을 잘하는 청양의 해입니다. 여러분의 삶이 양의 무리처럼 늘 조화롭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.

국민 여러분,

해방을 맞은지 70년이 되었습니다.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듯이, 새해에는 이에 걸맞는 제도와 문화, 그리고 이를 엮어 내는 우리의 마음도 풍성해져야 합니다. 편견과 배제를 떠나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,나아갈 길을 함께 찾아가기를 바랍니다.

남과 북은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. 공존과 상생의 한 마음으로 국제정세의 거센 파도를 헤쳐가야 합니다.

부처님은 자주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, 서로 화목하게 운영하는 나라를 가장 강하고 이상적인 나라라 하셨습니다. 이처럼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신 것은 현시대에도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.

불자 여러분,

우리 종단도 공론의 장을 열고,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점을 함께 찾아가는 원융회통의 아름다운 전통을 새롭게 펼쳐가겠습니다.

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, 온 국민,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.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. 대화합시다. 함께 삽시다. 고맙습니다.